

# ‘당구 여제’ 김가영 독주 막을 차세대 당구 퀸은 누구

### 프로당구 미디어데이... 15일 개막전 시작으로 10개 투어 대장정 김가영 “이번 시즌 부담감 떨치고 실력 증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프로당구 PBA가 오는 15일 개막전으로 출범 후 최대인 10개 투어 일정에 들어간다. 출범 7번째 시즌을 맞아 하림이 합류하면서 기존 9개 투어에서 1개 늘어난 10개 투어가 됐고, 개막 전 타이틀스폰서는 우리금융캐피탈이다. 프로당구를 대표하는 ‘국내파’ 대표 선수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2026시즌 PBA-LPBA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밝혔다. 개막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김가영의 7회 연속 우승을 가로막을 선수다. 김가영은 지난 시즌 3차 투어인 하노이 오픈부터 8차 웰컴저축은행 오픈까지 6개 대회에서 36연승 행진을 벌여 모두 우승했다. 시즌 왕중왕전 대회인 월드챔피언십에서 연승 행진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7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김가영은 “지난 시즌에는 승운이 많이 따랐다.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도 결실을 보았다. 이번 시즌은 실력을 증명해야만 할 것 같다. 부담감을 떨쳐내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LPBA 선수들은 김가영에게 존경심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그 뒤를 맹렬하게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상아(하림)는 “김가영의 독주가 내게는 동기 부여다.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고, 새 시즌에 만나면 최대한 괴롭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서한솔(우리금융캐피탈)은 “언젠가는 가영 언니가 연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시기가 왔다. 가영 언니를 이기려는 생각보다는 내 기량을 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처럼 LPBA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고, ‘거의 모든 걸 지난’ 김가영도 언지 못한 게 개막전 우승 트로피다. 김가영은 개막전 우승이 없다는 사실에 “지난 시즌 이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우승해서 개막전 우승이 없는 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에 워낙 많이 우승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면서 “비시즌 때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믿지 못하고 개막전을 치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남자부 PBA에서는 개막전에서 두 차례 우승한 강동공(SK렌터카)과 재기를 다짐하는 조재호(NH농협카드), 5시즌 만에 팀리그에 복귀한 최원준(에스아이)이 개막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지난 시즌 남자부 포인트랭킹 1위를 차지하고 최우수선수(MVP)를 받았던 강동공은 “예전에는 비시즌에 등산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러닝으로 바



2025-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프로당구 미디어데이. /연합뉴스

꿨다. 오랜 시간 경기해도 끊이지 않는 체력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조재호는 “절정 강동공이 지난 시즌 MVP 받는 모습을 보며 ‘저 자리가 저렇게 즐거운데, 다시 돌아가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 이번 시즌에는 강동공과 월드챔피언십 결승에서 만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개인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고도 팀리그 보급자리를 찾지 못하다가 이번 시즌 에스와의 부름을 받은 최원준은 “꾸준한 성적을 내고 싶다. 개인 투어와 팀리그 모두 좋은 성적을 내고, 꼭 우승해서 감동적인 소감을 밝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시즌 프로당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35초에서 33초로 공격 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대부분 선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한솔은 “질 때마다 루틴이 있는데, 2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다. 앞으로 2초 줄이는 연습을 해서 경기 중에도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전남 체육 인재 키운다”...국립목포대, 육상·탁구부 창단

### 육상 16명·탁구 5명 선수 구성

국립목포대학교가 육상부와 탁구부를 공식 창단하며 지역 체육 인재 육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대는 11일 오후 교내 70주년 기념관 정상목 국제컨퍼런스룸에서 육상부·탁구부 창단식을 개최했다. 목포대는 2023년 전남도체육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4년 탁구부, 2025년 육상부에 각각 특기생을 선발해 현재 전국단위대회에 나서고 있다. 창단식을 통해 육상부와 탁구부의 공식 출범을 알린 목포대는 검도, 배구, 롤러 등 기존 종목과 합

계 총 5개 운동부를 운영하게 됐다. 목포대의 육상·탁구부 창단은 의미가 깊다. 그동안 전남에는 육상 종목의 대학부가 없었다. 탁구는 과거 목포과학대에서 운영됐지만 폐지되면서 선수 육성이 단절됐다. 또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중·고교와 실업팀 간 연계가 어려웠고, 대학부 선수 부족은 전남 체육의 약점으로 꼽혔다. 때문에 이번 육상·탁구부 창단으로 초등학교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전남 선수 육성의 기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목포대 육상부는 체육학과 박희석 교수가 감독을, 국가대표 출신 이승호 코치가 지도를 맡고 있다.

또 2023년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1600m계주 1위를 차지했던 김기현(당시 전남체고) 등 16명(남자 13명, 여자 3명)의 선수로 팀이 구성됐다. 체육학과 이승재 교수를 감독으로 해 김성민 코치가 지도를 맡고 있는 탁구부는 5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지난 4월 충북 제천에서 진행된 제43회 한국대학탁구연맹전 단체전 8강에 올랐던 안지현, 박준서, 정의진 등 3명의 남자 선수와 올해 제64회 전남체전 단체전 8강에 진출했던 정희진, 조육주 등 2명의 여자 선수가 함께한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김민중·허미미, 세계유도선수권 2연패 도전



김민중



허미미

내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개막 한국 유도 대표팀이 2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금빛 매치기’에 도전한다. 유도 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2025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남녀 14개 체급 총 17명의 선수를 파견하는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이상을 노린다. 전망은 밝다. 한국 유도 대표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다가 세대교체를 이룬 지난해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최고의 성적을 냈다. 의미 있는 기록도 냈다. 남자 100kg 이상급 김민중(양평군청·세계랭킹 3위)은 한국 선수로는 39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최중량급에서 우승했고, 여자 57kg급 허미미(경북체육회·세계랭킹 5위)는 한국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김민중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꾸준히 세계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 파리 올림픽 결승에서 김민중을 꺾고 우승했던

‘세계 유도의 전설’ 테디 리네트(프랑스)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것도 호재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인 재일교포 출신 허미미도 2연패에 도전한다. 허미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크리스타 테구치(캐나다)를 연장(골든스코어) 혈투 끝에 꺾고 우승했다. 그는 파리 올림픽 결승에서도 테구치를 만났고, 다시 연장 승부 끝에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선 리넬 매치가 펼쳐지지 않는다. 테구치가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허미미는 경쟁자보다 자신의 실전 감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왼쪽 어깨 인대 수술을 받은 뒤 실전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 국제대회 출전은 파리 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점수 체계가 바뀐 뒤 열리는 첫 세계선수권대회다. IJF는 지난해 기존 한판-절반으로 구분했던 판정을 한판-절반-유료로 바꿨고 소매 안쪽 잡기, 말아업어치기, 머리를 사용한 공격 및 수비 등 기존에 금지됐던 기술을 허용하기로 했다. 힘과 체력이 좋은 선수보다는 기술이 뛰어난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기술 유도를 펼치는 한국 대표팀에 유리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선수들,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금빛 질주

### 진도군청 남보하나·해남군청 이은빈·여수시청 강길동 등 금

‘제53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다. 지난 10일 경북 예천에서 끝난 이번 대회에서 남보하나(진도군청)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 10분33초77로 결승 타이틀을 끊으며 1위에 등극했다. 남보하나나 5000m에서는 동메달을 더했다. 여자일반부 100m 경기에서 이은빈(해남군청)은 11초84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진도군청 이서빈은 800m(2분16초27)와 1500m(4분29초

86)에서 은메달을 얻어냈다. 남자일반부 20km경보에 출전한 강길동(여수시청)은 1시간30분37초 1위에 올랐다. 광양하이텍고의 메달 행진도 펼쳐졌다. 광양하이텍고 서예지는 여고부 세단뛰기에서 12m40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멀리뛰기에서는 5m70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여고부 400m에 나선 최지우는 56초61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800m에서는 2분15초63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광양백운중 이하은은 여중부 멀리뛰기(5m26)와 세단뛰기(11m22)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다. 남중부 1500m 경기에서는 김강석(전남제중)이 4분26초78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광주 선수단에서는 홍석민(빛고을초)이 남초부 200m에서 24초69에 질주를 마치며 1위를 차지했다. 홍석민은 100m에서는 12초18로 2위를 기록했다. 100m 우승은 12초09에 질주를 끝낸 김지한(전남구림초)의 차이가 됐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내일 강원 흥천서 열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호흡하는 ‘제4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 흥천군에서 열린다.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은 장애 유형과 상관

없이 누구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생활체육 통합대회로, 전국 17개 시도 1441명(선수 1097명, 임원 및 관계자 34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에서는 50명의 선수들이 불링, 배드민턴, 좌

식배구, 파크골프, 낚시 등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전남 선수단 50명도 파크골프, 불링, 낚시, 휠체어러كب, 좌식배구, 배드민턴, 파라트라이애슬론, 조정(실내) 등 8개 종목에 참여한다.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은 13일 오후 4시 흥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별의 항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6월 07일(토) 16:30, 17:30 / 남구 푸른길 공연 -06월 14일(토) 16:30, 17:30 / 양산호수 공연

문의 : 062-526-0363

\*우천 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의 항해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